잡은 물고기에 밥 주지말자

(호세아 13:1~16)

1.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2.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3.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4.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5.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잡은 물고기에 밥 주지말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잡은 물고기에 밥 주지말자'

외국의 시인이 한 말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남자는 자기가 첫 번째 남자이기를 바라고 여자는 자기가 마지막 여자이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남녀 간의 생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괴리가 잘 느껴집니다.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성에게 고백하기까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온갖 선물을 사주고 이벤트를 열어서 겨우 마음을 열게 합니다. 반대로 여자는 처음에는 아주 까다롭게 남자를 시험하다가 마음을 열게 되면 정성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는 이렇게 잡은 물고기와 같은 여자 친구에 대해 관심이 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된 남자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느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남녀관계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무관할 것 같은 목회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왕왕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라면 교인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보면 비어있는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이미 출석 중인 교인들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예배당 안으로 끌어들여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는 작게 보이고 빈자리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애꿎은 교인들에게 화를 내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온 교인들은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왔는데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를 대신 듣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말씀을 잘 먹고 돌아가야 전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미 출석하는 교인들을 잡은 물고기 취급하며 꼴을 먹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니 잘 나오던 분들도 나오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건조차도 주인의 관심을 먹고 삽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물건들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입니다. 가끔이라도 필요해서 관리를 해주면 값어치를 잃지 않지만 관심이 끊어진다면 점점 더 쓸모없고 하찮게 여겨지게 됩니다. 마음이 멱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연애든 인간관계든 목회든 심지어 물건에 대해서도 먹이를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세상적인 교훈과는 정반대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중에 들어온 것, 성취한 것,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을 주는 만큼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하였습니다. 또 13~14절에서는 이 말을 더욱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미 성취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성취해야만 하는 일을 향해 앞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자 하는 푯대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심으로써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에서 이룬 것들을 등지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땅에서 이룬 업적이 잡은 물고기였습니다. 그 일이 비록 훌륭한 일이었을지라도 땅에서 이룬 일인 한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끈 여호수아와 북 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적으로 주요 인물들을 배출하였고 북 왕국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강력한 지파로써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선민들 간의 인식 속에서 권세와 지위와 영광이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에 대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마음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나 성취가 기반이 됩니다. 이 업적과 성취는 잡은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에게 마음을 붙이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해보자면 배우자도 잡은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잡은 물고기에게 마음을 주는 셈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또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는 동안에 마음은 이상하게도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 마음을 채우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관계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이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것들에 가서 머무르고 마음을 붙이고 있습니다. 켜진 진공청소기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흡입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님 크기의 마음은 세상으로 인해 채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주어진 것들에게 바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즉 잡힌 물고기에게 마음을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주었으나 채워지지 않음을 인지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대상들을 소용없게 여기게 됩니다. 소용없게 여긴다는 것은 곧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마음에서 소용없게 여기는 상대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 차를 사면 3개월은 좋을지 모릅니다. 3개월간 마음 주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채움에 소용없음을 알게 되고 이윽고 점점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채워주는 가치 있는 존재에서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에서 소용없는 대상으로 전락한다고 해서 실제로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잡힌 물고기가 마음 채움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들을 토대로 삼아 올라서서 더 좋게 여겨지는 다른 대상을 찾아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돈을

토대로 삼아 올라섭니다. 그러면 올라선 만큼 높아집니다. 이것이 잡힌 물고기들에 대해서 마음을 준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정의는 곧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돈을 벌어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는 사람은 돈을 신으로 믿는 것이고, 결혼으로 마음이 채워지리라 믿는다면 상대방을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리라 기대하며 잡은 물고기로 여기는 대상이 마음을 채워 줄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버리지도 않지만 더는 관심도 주지 못합니다. 대신 그것을 토대로 삼아 올라서서 다른 관심거리를 찾게 됩니다. 토대로 전락하게 된 대상의 관점에서는 발밑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발밑에 보관하게 되면 내가 자꾸 높아집니다.
부자를 예로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을 채우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마침내 부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마음은 채워지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이 돈을 밟고 올라서서 다른 관심거리를 찾게 됩니다. 또 올라서고 보니 자신이 이미 가진 돈을 벌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에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에브라임은 북 왕국 이스라엘 내에서 강한 힘과 발언권을 가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권세와 위치와 인기를 통해 마음을 채워보고자 했으나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대상을 통해 마음을 채워보고자 했고 그것이 더 강한 이방민족이 섬기는 바알에 대한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지만 다른 것들로도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그로부터 기쁨과 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너그러워집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을 통해서도 일시적이나마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자기 돈을 써서 잔치를 벌입니다. 광복절 같은 경축일에는 모범수들을 사면해 주는 행사도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돈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세상의 재벌들은 다 너그러워서 타인을 살리고 구제하는데 망설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상하게도 산더미처럼 돈을 쌓아놓고도 더 많은 돈을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토대로 삼아서 다른 무언가를 통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토대로 삼아 올라서고 보니 다들 돈을 벌기 원하지만 자기만큼 번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마음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 지위, 학벌, 스펙, 명품 등을 비롯한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마음을 높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처음으로 차를 갖게 된 사회 초년생을 예로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경차를 사고도 내 차를 가졌다는 기쁨이 마음에 넘쳤습니다. 이후로 이 사람이 자리를 잡고 무척 부유해져서 10억 짜리 고급 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차보다 수십 배나 비싼 차를 사고서도 마음에 기쁨은 첫 차를 샀을 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주차장에 있는 동창들의 차 값을 다 합쳐도 내 차 한 대에도 미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에 마음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차 자체로는 기쁨이 되지 않지만 상대적인 차이에서 발생한 우월감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토대로 삼아 다른 채워짐을 찾게 될 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채우기 위해 두 손과 가슴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손으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동등한 위치에 서야 합니다. 발밑에 밟고 있는 대상을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높아졌는데 만족이 없고 휑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발밑에 놓고 토대로 삼은 대상을 통해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잡힌 물고기가 있습니다. 잡힌 물고기에게 마음을 줍니다. 잡힌 물고기에게 마음을 주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발밑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토대를 딛고 서서 올라선 만큼 마음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아래로 보입니다. 이때에 우월감을 느끼는 교만한 마음이 되고 이것이 타인에 대한 억압이나 괴롭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문 5~6절을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갔을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선민들의 처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아셨다는 것은 체험적 앎을 뜻하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민들의 상황에 마음을 붙이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살 집이나 타고 다니는 차도 하나님께서 필요해 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이러한 삶의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삶의 조건 자체로 마음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자 그것들을 토대로 삼아 올라가 더 큰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로 인해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잡은 물고기로 여기고 다른 물고기 잡기를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올라선 마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주체성이 활성화됩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은 반드시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신과 마주할 때도 나의 뜻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 뜻과 생각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토대 위에 서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꼴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선민들의 마음은 어느덧 하나님처럼 높아졌고 끝내 자신들의 소원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아무 반대를 하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신이기에 섬기는 체 행세는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신에게 명령할 수 있을 만큼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는 상대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선민들 가운데서 잊히고 말았습니다.

선민들뿐만이 아닙니다. 노숙자든 재벌이든 그 마음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올라선 높이가 다를 뿐이지 올라서고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잡힌 물고기에 관심을 주며 마음을 채우고자 했다가 소용이 없음을 깨달으면 발밑에 보관하여 토대로 삼습니다. 그리고 손과 가슴으로는 다른 대상을 끌어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에게서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집을 주셨습니다. 집이 잡힌 물고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인이라면 집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십자가에 마음을 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음을 인정함을 통해 집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어떤 대상들도 잡힌 물고기로 삼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에 대해서는 못된 남자친구입니다. 못된 남자가 연인이 된 여성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처럼, 신앙인은 내 소유가 된 세상 것들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지만 그것들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잡힌 물고기에 마음을 붙여도 그것들로는 결코 마음이 채워질 수 없고, 그것을 토대로 삼아 올라선다 하여도 교만해질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마음을 붙이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채워지자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임이 느껴집니다. 설령 거지 나사로처럼 몸만 있을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몸 하나가 넘치는 은혜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들의 특징은 베푸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분이라서 다른 것은 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는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모든 일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릴 때에 세상에 감사할 것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이것들에 마음을 붙이면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은혜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6절에서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에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진짜 은혜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앞을 봐도 은혜요 뒤를 봐도 은혜요 옆을 바도 은혜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잡힌 물고기들에게 마음을 먹이로 주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 충만해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은혜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